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자활참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김 근 실

2012년 8월

<국문 초록>

## 자활참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김 근 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 정 환

본 연구\*는 자활참여대상자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동기강화 요인인 심리적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심리상담 자립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립의지와 자립의지 하위변인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자기효능감과 자립의지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자기효능감 하위변인과 자립의지 하위변인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자기효능감은 자립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5. 자기효능감 하위변인은 자립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제주도 지역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 전체 592명 중 근로능력이 있고 건강이 양호한 제주도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서 근무하는 자활참여대상자 148명과 각 복지기관에 시설도우미로 근무하는 자활참여대상자 23명 그리고 읍. 면. 동. 시청에서 근무하는 자활참여대상자 73명, 총 221명 중 의미표집을 통해 7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과정은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서는 관리자에게 조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관리자가

---

\* 본 논문은 2012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자활참여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읍. 면. 동. 시청에 근무하는 자활참여대상자는 본 연구자가 직접 개별적으로 조사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실시하여 통계처리 및 자료 분석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로 사용된 자기효능감 척도는 2005년 보건복지부 발행 자활사업 안내책자 자료로 김승의(2006)가 사용한 1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자립의지 척도로는 임은주(2004)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설문지의 점수 범위는 1~5점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분석은 SPSS Window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치와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은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과 단순회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립의지는 연령대별, 학력별, 질병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즉 30대 연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또한 학력은 대학원이상에서 자립의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질병이 없는 대상자가 자립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결혼형태에 따라서는 별거가구와 이혼가구, 동거가구가 기혼가구보다 자립의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보장유형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차상위 자활 대상자의 자립의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원변량(ANOVA)분석에서는 연령과 학력에서 부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결혼형태나 보장유형 그리고 질병유무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효능감과 자립의지와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과 자립의지의 상관관계는  $r = .651$ ,  $p < 0.01$  로 정적관계로 나타났고, 상관성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자기효능감 하위변인과 자립의지 하위변인과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기조절효능감은 자립의지와 정적 상관성이  $r = .741$ ,  $p < 0.01$  에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자활참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계수( $R^2$ )가 .424로 42.4%의 설명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계수( $\beta$ )는 .651로 자립의지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계수( $R^2$ )이 .556으로 55.6%의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은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자신감순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자활참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이 자립의지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상자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요인은 자립의지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상자의 자립의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심리적 장애요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자립의지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대상자가 갖고 있는 심리적 문제를 스스로 해소하고 행동 변화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내적변화가 촉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상자의 잠재된 동기를 끌어내어 동기를 강화시키는 지속적인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진행에 따라 심리적인 내적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는 장애요인을 극복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대상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촉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자립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동기강화를 위한 심리상담 자립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그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 목 차

## I. 서 론

|                       |   |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1 |
| 2. 연구 문제 및 가설 .....   | 4 |
| 3. 용어의 정의 .....       | 5 |

## II. 이론적 배경

|                            |    |
|----------------------------|----|
| 1. 자활참여대상자와 자활사업 .....     | 7  |
| 2. 자기효능감과 자립의지 .....       | 10 |
| 3. 자립의지 영향요인 .....         | 20 |
| 5. 자기효능감과 자립의지 간의 관계 ..... | 23 |
| 5. 선행연구 고찰 .....           | 26 |

## III. 연구방법

|                    |    |
|--------------------|----|
| 1. 연구대상 .....      | 29 |
| 2. 연구도구 .....      | 29 |
| 3. 연구절차 .....      | 31 |
| 4. 자료처리 및 분석 ..... | 31 |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
|-----------------|----|
| 1. 일반적 특성 ..... | 32 |
| 2. 가설검증 .....   | 34 |

## V. 논의, 결론 및 제언

|                  |    |
|------------------|----|
| 1. 논의 .....      | 42 |
| 2. 결론 및 제언 ..... | 46 |

|            |    |
|------------|----|
| 참고문헌 ..... | 51 |
|------------|----|

|                |    |
|----------------|----|
| Abstract ..... | 58 |
|----------------|----|

|           |    |
|-----------|----|
| 부 록 ..... | 61 |
|-----------|----|

## 표 목 차

|                                       |    |
|---------------------------------------|----|
| <표Ⅱ-1> 기초생활수급자 분류 현황 .....            | 8  |
| <표Ⅱ-2> 자활사업 흐름표 .....                 | 10 |
| <표Ⅲ-1> 자기효능감 문항구성 및 신뢰도 .....         | 30 |
| <표Ⅲ-2> 자립의지 문항구성 및 신뢰도 .....          | 30 |
| <표Ⅳ-1 > 일반적 특성 분석 .....               | 33 |
| <표Ⅳ-4-1 > 연령에 따른 자립의지 및 자립의지 .....    | 34 |
| <표Ⅳ-4-2 > 학력에 따른 자립의지 및 자립의지 .....    | 35 |
| <표Ⅳ-4-3 > 결혼형태에 따른 자립의지 및 자립의지 .....  | 36 |
| <표Ⅳ-4-4 > 보장유형에 따른 자립의지 및 자립의지 .....  | 36 |
| <표Ⅳ-4-5 > 질병에 따른 자립의지 및 자립의지 .....    | 37 |
| <표Ⅳ-5 > 자기효능감과 자립의지와 의 상관관계 .....     | 39 |
| <표Ⅳ-6> 자기효능감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      | 39 |
| <표Ⅳ-7> 자기효능감 하위변인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 | 40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사회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로 소득 양극화 심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2010)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수급율)은 3%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매년 15~20만 명 정도가 기초수급상태를 벗어나지만 비슷한 규모의 인원이 우리나라의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수급자가 추가 또는 재선정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부터 시작된 지난 10년간 수급자에 대한 정책의 초점은 경제적 복지 지원에만 치중되어 왔다. 대상자들의 복지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결국 대상자들이 복지 수급에 안주하는 ‘빈곤의 함정’ 문제를 초래하였다(보건복지부, 2010). 이에 따른 심리적, 사회적, 일반적 특성에서 비롯되고 있는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통합적인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일을 통한 빈곤을 탈출’을 위해서는 ‘빈곤의 함정’에 안주하고 있는 장애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대상자의 문제를 복지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며, 실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하는 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속성이 아니라 그들이 지닌 성장과 발전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회복하는 심리재활의 관점을 인정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민규(2000)는 빈곤층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김창엽(2003)은 우리나라 저소득층 가구의 72.9%에서 환자가 있으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은 90% 정도가 만성 질환임을 밝히고 있다. 빈곤과 스트레스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빈곤은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적 조건과 사건에의 노출을 증가시키며, 증가된 노출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위험을 증가시켜 정신과적 증상을 유발한다(김인숙, 1992).

국내의 노숙자에 대한 연구결과, 노숙자중 약 62.6%가 알콜 의존이었는데, 간



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 이하 SCL-90-R)결과, 노숙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신체화, 우울증, 불안, 공포불안, 정신병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창엽, 2003). 박상규(2001)는 자활훈련중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들의 심리적 문제를 MMPI와 SCL-90-R 등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한 결과, 수급자 중 1/3 정도가 우울하고 불안하며 다양한 정신과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빈곤은 개인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문제로 확대된다. 가정폭력, 자살, 알콜이나 마약중독 등의 문제가 빈곤과 관련하여 일어난다(Bland, Steelsky, Orm, & Newman, 1988; Horwitz, 1984). 즉 빈곤문제는 개인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빈곤은 파급효과가 커 사회문제로 야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복지수급에서 탈피하기 위한 다양한 생존전략을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Hawkins, 2002; 김승의, 2006; 재인용). 심리학자들은 스트레스, 성취동기,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지적능력 등의 심리적 요소가 자활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경제학자들은 교육, 훈련, 기술 등의 인적 자본요소가 자활과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사회학자들은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사회적 자본이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중요한 관련 요인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인 요인들이 자활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 심리적 한계들로 인하여 자립자활을 촉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까지 자활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자활 즉 자활사업의 매출규모와 잉여금, 구직이나 직업유지를 통한 빈곤탈피에 일차적 초점이 맞추어진 상태이다. 그러나 자활참여대상자들이 나타내는 문제 유형 및 욕구에 대한 접근을 원조나 직업훈련 등 자활지원 중심의 경제적 접근으로 한정하고 해결하는 것은 제한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심리, 사회적인 특성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통합적 실천 측면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Pavetti(1997)의 연구에 의하면 수급자들의 고용에 수급자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제고가 핵심임을 밝혔다. Taylor(2001)의 연구에서도 수급자들이 지닌 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자기효능감은 고용상 지위 및 수급기간 등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실증하며, 태도적 측면이 수급자의 고용 및 자립에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Bandura(1997)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가능성에 대한 신념으로서 행동의 선택, 수행 그리고 지속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처한 상황과 문제로부터 얼마나 과제를 잘 수행 했는지와 관련하여 다루어져 왔다. 이는 심리, 사회적인 문제에 장기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자활참여대상자의 심리적 자립촉진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런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이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동기강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이 자립의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며, 기존의 연구들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자활에 미치는 영향이나 포괄적인 부분에서의 심리적 요인이 자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밝히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자활참여대상자들은 빈곤의 함정에 안주하고 있지만 선행연구(김창엽, 박상규, 이민규, 김인숙, 김승의 등)에 의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하며 위축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자가 갖고 있는 심리적 장애 요인을 동기부여의 관점에서 긍정의 에너지로 변화시킬 심리적 요인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대상자의 내적 변화를 촉발시켜 긍정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동기강화 요인으로 심리적요인인 자기효능감이 자립의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대상자들이 향후 빈곤탈출을 위한 자립의지 향상에 필요한 요인이라 사료되어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동기강화요인으로 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심리상담 자립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자활참여대상자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동기강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립의지와 자립의지 하위변인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자기효능감과 자립의지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자기효능감 하위변인과 자립의지 하위변인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자기효능감은 자립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5. 자기효능감 하위변인은 자립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립의지와 자립의지하위변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자기효능감과 자립의지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3. 자기효능감 하위변인과 자립의지 하위변인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4. 자기효능감은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자기효능감 하위변인은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용어의 정의

#### 1) 자활참여대상자

본 연구에서 자활참여대상자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분류체계상 조건부 수급자 중 일정수준의 근로능력과 자활사업에 참여의사가 있는 자에서 비취업대상자와 조건제시유예자를 제외한 자활참여대상자를 말하며, 이들은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에 의해 지역자활센터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의뢰된 자를 말한다.

#### 2)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여러 가지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이 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동기적 변인으로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개인의 신념으로 상황적, 구체적 자신감의 정도를 의미한다.

#### 3) 자립의지

본 연구에서 자립의지란 변화상황에 대한 자신감 및 자아통제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대상자들이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하고 생활의 변화를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Halvorsen, 1998). 그러므로 자립의지는 자기결정과 자기선택을 포함하며,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는 자립의지 구성요소를 자립심, 자아통제, 그리고 근로의욕으로 구성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자활참여대상자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동기강화 요인으로 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에 따른 이론적 근거로 자활참여대상자와 자활사업, 자기효능감과 자립의지, 대상자의 자립의지 영향요인, 자기효능감과 자립의지의 간의 관계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 1. 자활참여대상와 자활사업

#### 1) 자활참여대상자

본 연구에서 자활참여대상자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분류체계상 조건부 수급자 중 일정수준의 근로능력과 자활사업에 참여의사가 있는 자에서 비취업대상자와 조건제시유예자를 제외한 자활참여대상자를 말하며, 이들은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에 의해 지역자활센터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로 의뢰된 자를 말한다.

자활참여대상자는 자활특례자,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하며 이들이 받는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자활급여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급여로 자활사업을 통해 제공받는 급여로 우선적으로 생계를 충당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을 포함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경우 나머지 부족한 생계비를 보충급여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조건부수급자들은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다시 구분하고 있다.

자활사업에 조건부수급자들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자활급여특례자와 일반수급자 본인이 원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자활급여특례자와 일반수급자 본인이 원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자활사업 참여대상자가 될 수 있다(김승의, 2006).

노대명(2001)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들은 네 가지 특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장기실직상태에 놓인 위기의 계층이라는 점이다. 이들에게는 현금급여를 통한 최소한의 생활보장도 중요하지만 안정된 일자리 제공이 절실하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빈곤의 주원인으로 작용한 결과라 하겠다. 둘째, 조건부수급자는 노동능력이 취약한 계층이며, 가구여건이 열악해 근로활동에 종사하기 어렵다. 셋째, 조건부 수급자는 시장경쟁에 취약하다. 넷째, 조건부수급자들의 욕구는 다양하다. 이들의 일부는 과거에 부유한 생활을 체험했던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이들의 욕구는 매우 구체적이며, 서비스 요구에 있어서도 섬세하기까지 하다. 다섯째, 조건부수급자들은 지속적인 저축이 곤란한 계층이다. 그리고 질환이나 사업실패로 인해 자신이 없는 상태로 소득이 생존선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미래를 위한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처럼 이들 계층은 좀처럼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계층이기도 하다.

대상자들의 특성을 요약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불안하며, 심리적으로는 과거의 사업과 취업실패로 인해 많이 위축되어 있으며,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하며 자신감이 없다. 금융기관 거래에 있어서도 신용상의 문제로 인해 일을 하거나 도전하고자 하는 근로의욕도 많이 상실되어 있다. 사회적으로는 노동과 교육 그리고 소비의 주체로서 중심에서 밀려나 소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대상자들은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으며, 폭력적이다. 또한 질병에 쉽게 노출되어 만성질환자도 많다.

또한 일반수급자나 자활특례자와는 달리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로 하는 조건부수급자는 질병이나 예비군훈련, 국가자격시험 등의 명백한 사유 없이 결근, 지각, 조퇴 등 불성실하게 참여할 경우 조건이행 판단 기준표에 근거하여 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본인의 생계 급여액을 중지하게 된다.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조건의 이행을 재개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이러한 조치는 급여의 수급과 근로

를 연계시키는 근로연계(workfare) 모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신동면, 2005).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자활지원제도는 수급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훈련을 통하여 이들의 직업능력을 키워주는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단기적이며 집중적인 상담, 근로의욕 고취 훈련, 구직활동 등 자활사업 참여에 치중한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06년 통계에 따르면 수급자의 2005년 전체적인 자활성공 비율은 5.5%에 불과하며 많이 좋아지고는 있으나 그나마 대부분 저임금 임시·일용직 근로자로 이들은 조만간 다시 수급자로 회귀하거나 근로빈민(working-poor)에 머물게 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근로빈민층이 증가한다는 것은 수급자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자활참여대상자들이 수급자로 회귀되기 전에 혹은 수급자로 회귀되었을 때 수급자의 신분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에 따른 탈빈곤 복지정책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장애 요인까지 해소할 수 있는 체계적이며, 다각적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II-1> 기초생활수급자 분류 현황(보건복지부자료, 2009년.12.31)

| 구 분               | 근로능력유무           | 보장유형          | 자활참여 여부             |  |
|-------------------|------------------|---------------|---------------------|--|
| 차상위계층             | 희망참여자            |               | .자활사업참여자<br>(6.4만명) |  |
| 기초생활수급자<br>(157만) | 근로무능력자(129만,82%) | 조건부수급자(3.6만)  |                     |  |
|                   | 근로능력자(28만,18%)   | 자활특례자(0.6만)   |                     |  |
|                   |                  | 조건제시유예자(3.8만) |                     | .취업수급자<br>(12.7만)  |
|                   |                  | 조건부과제외자(20만)  |                     | .가구여건(양육,간병)<br>(2.1만)<br>.대학생(3.7만)<br>.기타 제외자(2.1만)<br>-입영 및 전역자 |

## 2) 자활사업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성한다. 주요 자활사업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정리를 통해 본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자활지원사업은 일자리, 기술, 자금부족으로 일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지역 사회 내에서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용창출과 더불어 삶의 질을 고양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김수현, 노대명, 홍경준, 2002).

자활지원사업의 성격은 첫째, 지역사회로 하여금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호하는 주체이면서 일할 기회와 근로의욕을 가지도록 지원케 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수요자 밀착형 사업이다”. 둘째로 공공부문의 물적 역량을 동원하되 공조직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탄력적인 민간단체가 진행하는 “지역 민간단체 참여형 사업”이다. 셋째 최저생계의 보장과 더불어 다양한 자활공급주체들이 총체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포괄적이면서 종합적인 사업”인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의 자활지원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자활근로 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은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다. 그 가운데 자활급여는 생계급여의 행태로 기초생활을 보장해주고 수급자에게 취업이나 각종 자활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자활을 도모하는 목적을 갖는다. 즉 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과 이에 맞는 근로활동을 연계하고 조건부로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희망 참여자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의무 참여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고 가구 여건상 근로가 가능한 사람들에 대하여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하여 취업을 촉진하거나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일반 저소득 계층에 대하여도 희망자에 한하여 대상자로 선정하여 참여하게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자활사업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 능력 있는 조건부수급 대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자리 사업이 바로 자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표<Ⅱ-2> 자활사업 흐름표

| 읍면동   | 시군구통합조사팀   |                              | 시군구자활고용팀   | 자활경로  |
|-------|------------|------------------------------|------------|---|
| 수급자의뢰 | 근로능력<br>판정 | 근로능력<br>있으며,<br>조건부과<br>된 경우 | 자활역량<br>평가 | 70점이상<br>.고용센터<br>직업훈련(취업)                                |
|       |            |                              |            | 70점미만<br>.지역자활센터<br>.자활근로사업단<br>(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br>-자활공동체 |
|       |            |                              |            | 40점미만<br>.근로유지형자활사업                                       |

## 2. 자기효능감과 자립의지

### 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청소년들의 과제 달성과 진로결정에 미치는 연구들에서 주로 검토되었다(김선혜, 1999). 또한, 실업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자원의 하나로 취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분적으로 다뤄져 왔다(안병철 외, 2001). 자기효능감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은 주로 외국의 연구를 통해 접할 수 있는데, 이들의 연구는 자기효능감이 자활의 기반이 되는 개인의 대처자원을 개발하고 근로의욕 고취라는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다(Kunz & Kalil, 1999).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개인의 신념으로 상황적, 구체적 자신감의 정도를 의미한다. 즉, 자기효능

감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동기와 행동의 방향을 결정짓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스스로가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Furstenberg & Rounds, 1995; 심은희, 2002에서 재인용).

이런 자기효능감은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래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행동 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높은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능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성인의 자기효능감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높은 자기효능감은 직업에 더 많은 관여를 하게 함으로써 재훈련과 새로운 적응이 필요할 때 긍정적 영향을 준다(Bandura, 1999; 심은희, 2002에서 재인용).

Kunz & kalil(1999)는 수급자들의 낮은 자기효능감은 근로시간 규제나 작업규칙 등을 이행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복지에서 노동으로의 이행에 있어서 자아존중감과 함께 자기효능감이 취업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 내적통제요인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제시했다(심은희, 2002에서 재인용). 또한, Parker(1994)는 공공부조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종단적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수급자들의 자기효능감을 고양시키는 것이 복지의 존정도를 경감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심은희, 2002에서 재인용).

이상에서 내용을 정리하면, 자기효능감은 동기강화 요인으로 자립의지를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자활참여대상자의 경제적 지원정책으로 자립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상자들의 심리적 내적 변화를 일으킬 잠재된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동기강화 요인으로서 자기효능감 강화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 가능함을 보여준다.

### (1) 자기효능감의 기능

Pajares(1996)는 자기효능감의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첫째, 자기효능감은 활동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노력의 정도와 질을 결정한다. 둘째, 활동

중에 장애를 만났을 때 얼마나 오래 견디는지를 결정한다. 셋째, 어려움을 예상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하게 하며 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저항력, 준비도, 노력의 양과 질이 상승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경험하게 될 스트레스나 불안을 다루고 견디게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결국, 자기효능감은 행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신감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성취수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이미경, 2001).

이상에서 자기효능감의 기능은 어려운 환경 상황에 있을 때,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적절한 준비와 노력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어려움을 예상하여 적극적으로 대비한다. 또한 그에 따른 스트레스와 불안을 견디게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립의지에 적합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 (2) 자기효능감과 진로

Betz와 Hackett(1981)은 여성의 진로발달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자기효능감이 진로선택, 진로행동 그리고 불확실한 경험이나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견뎌내는 인내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진로관련 자기효능감'은 초기의 학습 경험으로 형성된 인지적 과정이 후기 직업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설명해준다(Hackett & Lent, 1987). 또한, 진로선택과 적응에 관련되는 개인적 효능감을 특별히, 진로 자기효능감(career self-efficacy)'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들은 진로 자기효능감이 여성의 진로발달을 이해하고 수정하는 데에 특히 중요하다고 하였다.

진로 자기효능감 이론은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런 영향력은 진로결정과정에서의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동기 수준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개인이 특정 진로 영역에 대한 결정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는 개인적인 신념이라는 중재변인에 기초하게 된다. 따라서 진로결정행동은 일차적인 변인인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기대수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Taylor와 Betz(1983)는 특정진로영역과 관련된 자기효능감과 달리 일반적인 진로결정과 관련된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DMSE)을

제안하여 특정과제에 국한되었던 진로 자기효능감을 일반적 자기효능감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정진선(2001)은 진로결정효능감은 자신의 진로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성취할 수 있는 진로결정능력에 대한 신념, 혹은 유능감으로 자기효능감이 진로의사 결정과 직업적 성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진로결정효능감은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믿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이는 효능감이 강할수록 장애를 더 낮게 지각하며 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김영상, 2009, 재인용).

이상에서 진로효능감은 개인의 진로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특정 진로 영역에 대한 결정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동기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능력, 성격, 태도와 더불어 우선적으로 자활참여대상자의 동기부여와 의욕촉진을 위한 자기효능감 향상이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임을 말해주고 있다.

## 2) 자립의지

### (1) 자립의지 개념

자립의지의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 자립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사전적인 의미로 자립이란 “남에게 의지하거나 남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 나감”을 뜻하고 있다. Pearce(1997)는 자립이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복지욕구간의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오혜경(1998)은 자립이란 스스로 지원 가능한 것, 자조(Self-supporting)와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것, 자신감(self-confidence)의 개념으로서 능력과 관련된 측면을 강조한다. 또한 Pearce는 자립이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육을 포기한다거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적인 욕구를 포기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다양한 문제나 욕구간 조화롭고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한 해결을 시사하고 있다(김수현, 2001).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자립은 재활, 자활 이후의 과정으로서 궁극적인 복지의존

의 탈피, 안정된 삶의 질에 도달된 상태를 의미한다. 즉 자활이 자립을 이루기 위한 중간과정인 반면에 자립이란 실직상태에 있거나 극히 불안정한 생계수단을 가진 사람들이 자활사업 참여를 통하여 취업 또는 창업의 기회를 갖게 되어 노동을 통해 독립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성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립(self-reliance)이란 자신감을 바탕으로 노동을 통해 스스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있어서 자립은 자활사업 참여자 스스로가 자신의 자립에의 저해요인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자활사업을 통해서 또는 주변사람들이 아무리 자활사업 참여자를 지원하고자 하여도 참여자 자신이 자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는 한 자립을 위한 행위는 오히려 그 개인에게 부담만을 안겨주게 된다. 물질적인 지원은 참여자의 관심이 없이도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심리, 사회적인 문제는 자립하고자 하는 참여자의 심리적인 과정이나 욕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심리적인 과정이나 욕구를 자립의지라 한다.

이상과 같은 자립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자립의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립의지란 변화상황에 대한 자신감 및 자아통제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대상자들이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하고 생활의 변화를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Halvorsen, 1998). 그러므로 자립의지는 자기결정과 자기선택을 포함하며, 그에 대한 결과에 책임지는 심리적 자립에 포함된다(정은주, 1998). 김명숙(2007)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독립 하에 정당한 지위에 서고자하는 자기 발견적 의욕 또는 욕구로 자립의지를 설명하고 있다. 즉 자립이란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위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자립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신분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하고 위축된 심리적 장애요인들을 해소할 심리적 내적변화가 필요하다. 내적 변화는 내면 깊이 잠재된 동기가 부여되고 동기강화가 이루어질 때 행동의 변화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 (2) 자립의지의 구성요소

자립의지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정은주(1998)는 자립의지의 구성요소를 사회적 독립상황을 이끌 수 있는 변화상황에 대한 자신감 및 자아통제능력, 경제적인 독립상황을 이끌 수 있는 근로의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을 거론했고, 오혜경(1998)은 스스로 지원 가능하다는 개념의 자조(self-supporting)와 스스로 신뢰할 수 있다는 개념의 자신감(self-confidence)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이경혜(2000)는 자기결정과 자기선택 그리고 자신감, 자존감을 심리적 자립의 구성요소로 보았고, 박영란, 강철희(1999)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자립의지를 미래의 일에 대한 자신의 의지반영,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 마련에 대한 자신감, 맡겨진 업무 및 과업의 수행에 대한 자신감, 주어진 일의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의지,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 어려움 극복에 대한 의지로 구성하였다. 변규관, 이정은, 최수찬(2007)은 변화상황에 대한 자신감 및 자신의 상황에 대한 자기통제, 문제상황에 대응하는 문제해결능력으로 구성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연구자는 자립의지를 구성하는 요소로 자립심, 자아통제, 그리고 근로의욕을 들고자 한다.

첫째, 자립심이란 성공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의 상태 또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주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Bandura, 1977)인 자기효능감과 관련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둘째, 자아통제는 개인이 자신의 행위를 관리, 통제하는 기술이며, 보다 크고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하여 행동을 제지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회적으로 적합한 행동을 인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Kopp, 1982). 즉, 자아통제란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이 타인이나 외부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적절한 선택을 통해 자아통제의 방법을 배우게 되면 타인과 외부세상에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자신의 선택과 권리와 의무를 인지하면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제를 비난하는 대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방식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김명숙, 2007).

자활참여대상자에게 있어 심리, 사회적인 문제 상황은 장기적인 빈곤과 실직의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 즉 자신감의 상실, 자기관리의 부족, 지속적인 과업 수행 등의 어려움 그리고 자활의지의 부족이라는 심리적인 문제와 불안정한 취업형태, 열악한 주거형태, 다양한 질병문제 가족 교육문제, 가족 구성원 중에 노인과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점 등의 사회적인 문제로 인한 자립실패의 요인으로 자립능력의 결여와 대인관계 능력의 결여 등이 제시되고 있다(박용순, 1995).

이러한 심리, 사회적인 문제 상황에 있어 자활참여대상자들은 주어진 상황을 탐색하고 대안을 파생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대처능력인 문제해결 능력이 요구되어지는데(김금열, 2002),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자신의 선택과 권리와 의무를 인지하면서 문제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아통제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자아통제와 관련하여 모자가정 모의 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에 있어 통제감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편모가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로부터 모자가정 모의 적응에서 통제감을 비롯한 심리적 자원이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김경신 외, 1997; 김경신 외, 1998; 신화용 외, 1996; 현은민 외, 1996). 이와 같이 자아통제 향상은 자활참여 대상자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경제적 그리고 심리,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 제고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의욕은 근로활동에 참여하려는 동기부여 정도 또는 최소한의 생계유지 욕구를 스스로 충족하기 위한 심리적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다(허태현, 2005). 이는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데에 있어 선결 조건인 동시에 이를 통해 자기의 가능성을 재발견할 수 있는 심리적 장치라고도 할 수 있다(김명숙, 2007).

의욕이란 특정한 목표를 향해 행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욕은 대개 능력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즉 성과를 이루어 내는데 있어 능력이 아무리 높더라도 의욕이 없으면 성과가 나오지 않고, 의욕이 아무리 높더라도 능력이 낮으면 역시 성과가 떨어지게 된다. 물론 둘 다를 위해 노력하면 성과가 향상되겠지만, 당장 능력을 높이는 것보다는 의욕을 높이는 것이 용이하다. 그리고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습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조승호, 2002).

이상에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근로의욕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나 심리적인 내

적 요인이 촉발이 안되면 행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리적 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한 내적변화 요인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동기 강화가 필요하다.

### (3) 근로의욕 이론

근로의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에는 Adams의 공정성이론(Equity theory), Vroom의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 Locke의 목표설정이론(Goal setting theory)이 있다(김영미, 2002). 이들 이론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욕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과 사업참여를 통해서 얻은 결과 및 그에 대한 기대에 의해 형성된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준다.

이상의 근로의욕 이론은 자활사업이 참여자의 자립의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 아래 근로능력이 있으나 빈곤한 계층을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근로의욕을 측정하는 것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의지 개념에 적절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 가. 공정성이론

공평성이론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지만 주로 인용되는 것은 아담스(Adams, 1965)가 인간들의 상호관계 맥락에서 전개한 다음의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첫째,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투입에 대한 결과의 비율을 따질 때 타인의 경우와 비교해서 평가하는데,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투입대비 결과가 불공평하다고 인지하면 공평하지 않은 것이 된다. 셋째,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괴로움도 커지고 넷째, 괴로움이 커질수록 다시 공정하게 일하기도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공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투입이나 결과를 바꾸거나 관계를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만일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는 더욱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Huseman et al, 1987).

이상의 공평성 이론은 현재 많은 논의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



적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책과 제도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운영된다면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줄어들 것이고, 그로 인해 대상자들은 예측 가능한 보상에 대해서는 노력을 더 하게 될 것이다.

## 나. 기대이론

기대는 말 그대로 어떤 행위의 투입에 대해 어느 정도의 산출을 예상하는 것이다. 기대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정도에 대한 대상자의 인식이다. 기대이론에서의 동기부여는 만족이나 성취와 동등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를 밑바탕으로, 만족·성취·동기부여는 모두 분리된 변수이며 이와 별개로 개개인의 능력, 역할인지정도 등의 변수가 개입된다(Porter & Lawler, 1968).

브룸(Vroom)이 기대이론을 제안한 목적은 사람들이 취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설명하려는 것이었다. 그에 의하면 행동의 결정은 기대(expectancy)와 유용성(valence), 도구성(instrumentality)이라는 3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발생하는 인지적인 것이다. 기대와 도구성은 가능성이나 확률로, 유용성은 행동주체의 가치로서 표현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동기를 결정하는데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행동의 강도(force)가 이들을 산출하는 기능을 한다.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사업장에서 만족도가 높고 동기부여가 잘 되고 조직의 생산성이 높을 수 있다는 관계는 경험적 세계에서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동기부여란 어떤 사람의 행동에 거는 기대가치와 그의 목표가 성취될 수 있다고 믿는 인지된 확률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기대이론은 근로자 개인의 가치관과 능력이 중요한 변수로 제기되며 산업사회학에서 근로자 가치관은 자아실현, 동기부여, 직무만족 등 직무와 관련된 내재적 요인과 작업조건, 임금보수 등 직무외의 변수로 보는 외재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작업장에서 근로자 형태를 파악하는 등 근로자 가치의식을 중요시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1992).

이상의 기대이론은 기대가 클수록 그에 따른 노력은 더해 질 것임을 의미한다. 자활참여대상자들의 노력을 투입하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곧 노력은 자립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심리적인 의지를 촉진할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다. 목표설정이론

로크(Locke, 1981)는 목표(goal)를 개인이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자 행위의 목적(object or aim), 즉 의도(purpose and intent)의 개념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고 정의했다. 목표설정이론의 주요 개념은 난이도 (difficulty), 명확성 (specificity), 그리고 피드백(knowledge of results; feedback)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한, 목표가 쉬운 것보다는 어려울수록 더 훌륭한 수행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목표가 어려울수록 목표달성을 위해서 더욱 더 효과적인 행동을 한다. 둘째, ‘최선을 다해라’는 식의 일반적이고 단순한 목표보다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을수록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나은 수행결과를 얻는다. 셋째, 어렵고 명확한 목표에 의해서 이득이 생긴다는 피드백을 받으면 목표달성에 전력투구함으로써 동기화된다(Locke et al., 1981; Mento et al., 1987).

이상의 내용은 대상자들의 개인적인 목표를 갖도록 독려하는 게 자립의지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막연한 목표가 아닌 개개인의 갖고 있는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동기 부여로 작용한다면 자립 촉진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라. 욕구서열이론

Maslow(1953)의 욕구서열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존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 내용은 첫째, 생리적 욕구는 인간의 생명 자체를 유지시켜주는 기본적인 욕구로서 의식주와 관련되며 음식, 물, 옷, 주택, 수면, 성생활 등 본능적인 생리현상에 따른 욕구를 말한다. 둘째, 안전의 욕구는 일상생활에서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추구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셋째, 소속과 애정의 욕구는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어느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 하고, 사랑과 우정을 나누고 싶어 하는 욕구를 말한다. 넷째, 자존의 욕구는 소속의 욕구가 채워지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같은 욕구는 권력, 명예, 지위의 상승을 추구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다섯째, 인간의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인 자아실현의 욕구 즉,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가장 완전하고 창조적으로 꾸준한 성장을 추구하며 자신의 존재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이인정·최혜경, 1998). 이 네 가지 이론은 공평성을 추구할 때, 무엇인가를 기대할 때, 목표가 있을 때, 욕구의 서열이 높아질 때 자활의욕을 갖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가 공정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고 기대와 목표가 있고 그에 따른 욕구들이 있을 때 의지가 생기며 행동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은 대상자의 동기를 부여하고 강화하기에 충분하다. 이는 대상자들의 자립을 촉발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 3. 자립의지 영향요인

#### 1) 심리적 요인

빈곤층은 도시지역 주민들 중에서 정신 보건의 일차적 관리 대상이 되며, 정신적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정균, 1986). 선행 연구들에서 우울과 불안은 부정적인 정신건강의 한 측면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 통제능력의 상실 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용되어져 왔다. 특히 국내에서 빈곤층의 심리적 특징으로 우울과 불안은 주요지표로서 사용 되어왔는데, 이 두 가지 특성은 일상생활에서 보통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경험하는 현상으로 생활에서 일어나는 긴장을 가장 잘 나타내는 기준으로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김인숙, 1994; 김영희, 1996; 유조안, 2000).

대표적으로 우울의 증상은 예전에 경험했던 일이나 활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며 참여가 요구되어질 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불안은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 스트레스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룰 만큼 자신의 자원과

기술을 적절하게 동원하지 못하게 한다. 즉 우울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이 증가하는 동안 자아개념을 훼손시켜서 자기 자신의 상황을 보다 실제보다 더 위태롭게 지각하여 사회적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보았다(심은희, 2002)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의 불안과 우울은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심리·사회적 문제는 신체적 문제처럼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개인의 주관적 복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적극적인 구직 행위나 근로의욕을 감소시킴으로써 자립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대상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늘 불안하다. 더불어 우울감도 함께 나타나며 또한 사회에 대한 분노에 차있다. 이들을 자립으로 이끌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리적인 장애요소들을 다루어 줄 필요가 있고 그것은 사회적 책임과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활참여대상자들의 심리·사회적 상태와 욕구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생활에서 무력감, 우울, 불안을 느끼고 과거보다 현재가 더 행복하지 않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활참여대상자들의 심리·사회적인 문제는 이들의 효과적인 자립 및 빈곤탈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빈곤의 장기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보면 심리·사회적인 문제를 가진 자활참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심리·사회적 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함이 중요하다. 그에 따른 효과적인 문제해결방안을 안내하는 지역사회중심의 전문적인 재활 및 자립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과 더불어 우선적으로 심리적 자립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요인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배재숙(2002)은 정신건강수준과 수급형태가 자립의지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이상록, 진재문(2003)의 자활후견기관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저연령층 보다 고연령층이, 또한 기술자격증

소유여부와 건강이 자립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나타난다.

조성호(2002)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기술보유여부 및 신체적 건강이 자립의욕과 상관성이 있음이 제시되었고 김선희(2001)는 쪽방거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미영(2002)은 ‘취업대상 조건부수급자의 경제적 자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조건부 수급자중 자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개인적 특성, 가족 특성, 정부 자활지원 특성으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 개인적 특성으로는 건강상태가, 가족적 특성으로는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이, 정부자활지원특성과 관련하여서는 참여중인 프로그램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김세원(2004)은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사업 대상자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개인이 지각하는 건강, 우울증, 근로에 따른 인센티브가 약한 점,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신뢰도, 지역사회 지지, 자활사업 참여기간과 급여가 자활 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빈곤여성의 자활에 관한 연구는 ‘빈곤의 여성화’가 사회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심은희, 2002). 빈곤여성의 자활에 관련된 논의는 대부분 취업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어졌는데 그만큼 경제적 자활이 빈곤여성가장에게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졌기 때문이다.

안종순(2001)은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경제적 자활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자활의지에 개인의 근로의욕, 자신감, 또는 자립심등의 개념을 포함한 연구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활 의지가 높은 것으로 연구되었다. 박영란, 강철희(1999)는 저소득 모자가구주를 대상으로 자립의지의 정도를 측정하고 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 모자가정모의 개인적 특성가운데 교육수준, 건강문제, 취업상태, 직업훈련, 한 달 평균 수입, 한 달 평균 저축액, 직업에 대한 태도, 삶의 만족도, 우울정도, 성역할 의식 등의 변수가 자립의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빈곤여성들의 자활의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빈곤여성가구주의 경제적 자활과 개인적 특성, 심리·사회적 요인들에 대하여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형화된 양적 연구방법들이 대부분이다. 다만 김세원(2004)은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병행하였다. 아쉬운 점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양적 연구방법이 실시되었고 자활후견기관 실장과 복지관 자활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자활 참여자들의 자활의지 제고방안이 질적 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자활참여자들을 직접 심층 면접한 연구로는 백학영, 고미선(2007)의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과 노동시장 진입 전망에 관한 연구’가 있다. 자활사업 참여경험이 있는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활사업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지 못한 참여자들은 자활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돌파구를 찾거나 뚜렷한 계획 없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강한 자활의지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미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노동시장 진입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자활참여대상자들의 갖고 있는 일반적 요인, 즉 연령이나 학력, 만성질병, 수급형태 등 수급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일반적 특성들이 자활참여 대상자들의 자립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대상자들의 건강상태와 낮은 연령 그리고 높은 학력 요인들은 자립의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 자립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 4. 자기효능감과 자립의지 간의 관계

본 연구와 관련하여 자기효능감과 자립의지 간의 관계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효능감 이론은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영역과 환경 속에서 연구되어 왔고,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긍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학습동기 영역에서 그 관심이 증대되어 왔고(Pintrich &

Schuck, 1995; 이은경, 2003, 재인용), 최근에는 진로 교육을 연구하고 있는 여러 학자들이 직업적 행동과 진로 상담에 자기효능감의 잠재적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Lent, Hackett, Betz; 남미숙, 1998, 재인용)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개인의 신념으로 상황적, 구체적 자신감의 정도를 의미한다. 즉, 자기효능감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동기와 행동의 방향을 결정짓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스스로가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감을 의미하는 것이다(Furstenberg, 1995; 심은희, 2002에서 재인용). 이런 자기효능감은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래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행동 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높은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능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성인기의 자기효능감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높은 자기효능감은 직업에 더 많은 관여를 하게 함으로써 재훈련과 새로운 적응이 필요할 때 긍정적 영향을 준다(Bandura, 1999; 심은희, 2002에서 재인용).

Kunz & Kalil(1999)는 수급자들의 낮은 자기효능감은 근로시간 규제나 작업규칙 등을 이행하는 부분들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복지에서 노동으로의 이행에 있어서 자아존중감과 함께 자기효능감이 취업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 내적통제요인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제시했다(심은희, 2002에서 재인용). 또한 Parker(1994)는 공공부조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종단적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수급자들의 자기효능감을 고양시키는 것이 복지의존정도를 경감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심은희, 2002에서 재인용).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처한 상황과 문제로부터 얼마나 과제를 잘 수행했는지와 관련하여 다루어져 왔다. 높은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보다도 더 높은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만 반면에 낮은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조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쉬운 과제만을 선택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성취욕구와 자기효능감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의 개발과 심리적인 요인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 복지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김은선(2005)은 자아존중감과 효능감이 높을수록, 삶의 목적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자활이 높게 나타나며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고, 문제 상황에서 자기조절력이 높을수록 자활의지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자활과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빈곤을 벗어난다는 것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사회통합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음이다. 복지의 수급자를 줄여 복지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세수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부수적인 효과다.

자활의 효과성 혹은 자립태도, 만족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등에서 자활의지와 태도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간의 국내외 연구들은 자활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적요소와 가족환경, 후견기관, 프로그램,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지 등이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하였다(이형하, 2003; 이상록, 2003). 특히 건강에 대한 요소가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는데,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이 자활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자활대상자의 자립에 대한 의지와 태도 그리고 심리적 요인은 자립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자활의 욕에 미치는 심리적 요인 중에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자아존중감 순으로 보고된 선행연구가 있다(김승의, 2006).

이상의 이론적 내용들을 종합하면, 자활참여대상자의 자립의지는 개인의 갖고 있는 심리적요인과 개인이 갖고 있는 일반적 특성 요인들이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제적 자립지원만으로 빈곤 정책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심리적, 사회적인 복지 서비스 정책들이 통합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확대되는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5. 선행연구 고찰

연구문제를 토대로 선행연구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김의철(1999) 등은 자기효능감에 대한 신념은 행동의 주된 근원이고 우리의 삶은 이러한 효능감에 대한 신념에 의해서 유도된다고 했으며, 이희경(2008)은 자기효능감이 행동에 관한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내가 할 것(will)과, 내가 할 수 있다(can)고 믿는 것에 관한 것으로 자기효능감 신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나의 신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지각한 기술과 도전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사람들은 과제에 대해 집중을 하게 되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증가할 것이다.

이창호(2003)등은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여길 때면 그 상황을 회피하지만 자신이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길 때는 자신감을 갖고 대처 행동을 한다고 했다.

Kanfer(1990)는 자기효능감을 목표달성을 위해서 요구되는 활동들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신의 장차 능력에 대한 복잡한 인지적 판단이라고 하였고, 안순자(1997)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유능한, 능력 있는, 효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와 같은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유능성, 효능성, 자신감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Bandura(1982)는 특정 과업이나 행동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인 자기효능감이 강화될 때, 여성의 취업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학습경험에 의하여 만들어진 인지적 구조라 할 수 있고 수행성취, 대리(간접) 학습, 정서적인 자극, 그리고 언어적 설득과 격려의 4가지 방법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이지연 외, 2006, 재인용).

Nichols-Casebolt(1986) 연구에서는 행태 변화가 자립성취에의 주요한 지표가 됨을 보여주는 “수급여성에 비해 비수급여성이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높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수급자의 심리 및 태도 등이 자립에의 주요한 매개요인임을 “태도변수와 고용간 밀접한 관련성”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설명

하기도 하였다.

Menaghan(1990)의 분석에서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저임금이 고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실증하고 있으며, Pavetti(1997)는 관련연구들을 토대로 “수급자들의 고용에 수급자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제고가 핵심”임을 밝혔다. Taylor(2001)의 연구에서도 수급자들이 지닌 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자기효능감은 고용상 지위 및 수급기간 등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실증하여, 태도적 측면이 수급자의 고용 및 자립에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김은선(2005)은 자아존중감과 효능감이 높을수록, 삶의 목적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자활이 높게 나타나며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고, 문제 상황에서 자기조절력이 높을수록 자활의지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영미(2002)는 자활사업은 참여자의 의지향상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아래 근로능력이 있으나 빈곤한 계층을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근로의욕을 측정하는 것은 자활사업에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문진곤(2004)은 자활참여대상자의 자활의욕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한 연구에서 자활의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경제·심리적 지원 중심으로 자활사업의 추진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였고, 그리고 자활사업운영기관의 전문적인 교육, 주민건강 향상, 일자리 발굴을 위한 자활사업을 추진할 때 자활의욕이 높게 나타난다고 자활의욕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발전방안을 연구하였다

장정순(2000)은 탈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경제적인 지원만이 아닌 심리적·가족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자활참여대상자의 직업훈련 후 자격증 취득과 근로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자립관련요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특히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이 자활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중요함을 보여준다(이상록 2003;이형하 2003).

이형하((2004)는 빈곤층의 자활효과성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활효과성은 자활사업특성, 인적자본특성, 개인과 가족 등의 자활참여대상자의 생태 체계적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는 통합적 관점에 관해 주장 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자활효과성을 정서적 자활과 사회적 자활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였다. 또

한 자활효과성의 요인으로서는 인적자본 관점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자활사업특성, 개인특성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활참여대상자의 개인-가족-환경 등의 종합적인 요인들이 자활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활효과성에 대한 측정은 다차원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특히 빈곤층의 자활효과성 요인은 단순히 한 가지 영향을 받기보다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선행연구들을 종합 정리하면 심리적, 사회적 요인은 자립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기반으로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각적인 요인 중의 한 부분으로서 동기강화 요인인 심리적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이 자립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 III. 연구 방법

본 장에서는 대상자의 동기강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과 자기효능감 하위변인이 자립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대상, 연구도구, 연구절차, 자료처리 및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제주시 지역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근로능력 있는 조 건부수급자 전체 592명 중 근로능력이 있고 건강이 양호한 제주시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서 근무하는 자활참여대상자 148명과 각 복지기관에 시설도우미로 근무 하는 자활참여대상자 23명 그리고 읍. 면. 동. 시청에서 근무하는 자활참여대상자 73명 등 총 221명 중 의미표집을 통해 7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연구 도구

##### 1)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정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는 개인적 신념의 의미로서 자기효능감 척도는 2005년도 보건복지부 발행 자활사업 안내책자의 자료로 김승의(2006)가 사용한 1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 우 그렇다’ 5점으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설문문항 4, 8, 10, 11번은 반대질 문으로 역코딩 처리, 김승의의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844이다.

<표Ⅲ-1> 자기효능감 문항구성 및 신뢰도

| 구 분                       | 문 항 수 | 문 항       | Cronbach $\alpha$ |
|---------------------------|-------|-----------|-------------------|
| 자기조절 효능감<br>자신감<br>과제 난이도 | 13    | 1,2,3,7,9 | .844              |
|                           |       | 5,8,10,12 |                   |
|                           |       | 4,6,11,13 |                   |

## 2) 자립의지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립의지 척도로 임은주(2004)의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박영란 외(1999)가 개발한 6개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와 심리적 자립의 정도를 측정하는 심리적 자립도(이경해, 2000) 측정도구를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추가한 것이다. 총 13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미래의 일에 대한 자신의 의지 반영,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의 마련에 대한 자신감, 맡겨진 업무 및 과업 수행에 대한 자신감, 주어진 일의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자신감, 어려움 극복에 대한 의지, 자기결정, 자기선택, 자존감 등이 포함된다.

질문지 형태는 Likert척도에 따라 각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 척도로 측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립의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를 통한 내적 일관성 검사에서 Cronbach  $\alpha$  값은 .914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표Ⅲ-2> 자립의지 문항구성 및 신뢰도

| 구 분  | 문 항 수 | 문 항          | Cronbach $\alpha$ |
|------|-------|--------------|-------------------|
| 자립감  | 4     | 1,2,3,4      | .914              |
| 자아통제 | 4     | 5,6,8,13     |                   |
| 근로의욕 | 5     | 7,9,10,11,12 |                   |

### 3. 연구 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문항에 대한 이해 정도와 소요시간, 문항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조사 시 필요한 기초정보를 파악하였으며, 문항에 대한 이해정도를 높이기 위해 문장 등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조사과정은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서는 관리자와 면접을 하여 설문조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관리자가 직접 조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 대상자들에게 설문문을 배포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회수하였다. 읍. 면. 동. 시청에 근무하는 자활참여대상자는 직접 본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만나 조사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설문문을 실시하여 회수하였다.

###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의 분석은 의미 표집된 대상자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한부씩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75부 중의 2부는 설문내용에 성실성이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설문문으로 결측 처리되었고, 총 73부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과 오류 검토 작업을 거친 후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자활참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립의지 수준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변량 분산분석(One-way ANOVA)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자기효능감과 자립의지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넷째, 자기효능감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수가 자립의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장에서는 자활참여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자기효능감 하위변인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립의지와 자립의지 하위변인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자립의지와 자립의지 하위변인 간의 상관관계, 자기효능감과 자기효능감 하위변인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제주시 2개소 지역자활센터와 읍. 면. 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참여자를 대상으로 그 중 근로능력이 있고 건강이 양호한 대상자, 즉 조건부수급자, 차상위 자활, 일반수급자 등의 자활참여자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일반적 특성을 연령, 학력, 만성질환 여부, 보장유형, 결혼형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자활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IV-1>과 같이 나타났다. 연령은 30대 이상에서 40대 이하가 54.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력은 고졸이상의 학력자가 48.2%를 차지하고 있다. 결혼형태에서는 이혼대상자가 34.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 기혼대상자, 미혼대상자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유무는 질병이 없는 대상자가 87.5%를 차지하고 있어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유형은 조건부수급자가 71.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상자가 30~40대가 76%를 차지하고 있고, 이혼가구와 조건부수급자 중심으로 자활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력도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들도 10%이상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IV-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빈도분석

| 변수     | 구분      | 빈도(N) | 비율(%) |
|--------|---------|-------|-------|
| 연령     | 20대     | 16    | 21.9  |
|        | 30대이상   | 41    | 54.7  |
|        | 40대이상   | 16    | 21.9  |
|        | 계       | 73    | 100.0 |
| 학력     | 무학      | 1     | 1.4   |
|        | 초졸이하    | 4     | 5.5   |
|        | 중중퇴     | 6     | 8.2   |
|        | 중졸      | 6     | 8.2   |
|        | 고졸이하    | 7     | 9.6   |
|        | 고졸      | 32    | 43.8  |
|        | 대학중퇴    | 7     | 9.6   |
|        | 대학교졸업이상 | 10    | 13.7  |
| 계      | 73      | 100.0 |       |
| 결혼형태   | 미혼      | 16    | 21.9  |
|        | 기혼      | 17    | 23.3  |
|        | 이혼      | 25    | 34.2  |
|        | 별거      | 2     | 2.7   |
|        | 사별      | 7     | 9.6   |
|        | 동거      | 2     | 2.7   |
|        | 재혼      | 3     | 4.1   |
|        | 기타      | 1     | 1.4   |
| 계      | 73      | 100.0 |       |
| 만성질환유무 | 있다      | 8     | 11.1  |
|        | 없다      | 63    | 87.5  |
|        | 계       | 71    | 98.6  |
| 보장유형   | 일반      | 8     | 11.0  |
|        | 조건부     | 52    | 71.2  |
|        | 비수급자    | 4     | 5.5   |
|        | 기타      | 9     | 12.3  |
|        | 계       | 73    | 100.0 |



## 2. 가설검증

###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립의지 분석

【 가설 1 】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립의지와 자립의지 하위변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립의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 빈도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종속변수를 자립의지 및 자립의지의 하위요인인 자립심, 자아통제 그리고 근로의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연령, 학력, 질병유무, 결혼형태, 보장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활참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립의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자활참여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자립의지 분석결과는 <표IV-4-1>와 같다. 30대 자립의지 평균은 3.60으로 다른 연령(20대: 3.34, 40대:3.25)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립의지 하위변인 중에서는 자아통제 변인만이 연령에서  $p<.05$ 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나 가족형성이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표IV-4-1> 연령에 따른 자립의지 및 하위변인

| 구분 |        | 자립의지 |           |                 | 자립심       |                | 자아통제      |                 | 근로의욕      |                |
|----|--------|------|-----------|-----------------|-----------|----------------|-----------|-----------------|-----------|----------------|
|    |        | N    | M(SD)     | F/p             | M(SD)     | F/p            | M(SD)     | F/p             | M(SD)     | F/p            |
| 연령 | 20대    | 16   | 3.34(.42) | 3.824*<br>/.027 | 3.66(.50) | 2.944/<br>.059 | 3.23(.51) | 4.696*<br>/.012 | 3.40(.54) | 2.295/<br>.108 |
|    | 30대    | 41   | 3.60(.53) |                 | 3.86(.62) |                | 3.69(.62) |                 | 3.60(.59) |                |
|    | 40대 이상 | 16   | 3.25(.32) |                 | 3.47(.45) |                | 3.34(.43) |                 | 3.26(.40) |                |
|    | 계      | 73   | 3.47(.49) |                 | 3.73(.58) |                | 3.51(.59) |                 | 3.48(.55) |                |

\* $p<.05$

자활참여대상자의 학력에 따른 자립의지는 <표IV-4-2>와 같다. 자립의지는 대졸이상에서 평균(M)이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원변량분석에서는 유의미( $p<.05$ )하게 나타났다.

대졸이상에서 자립의지 하위변인 자립심, 자아통제 그리고 근로의욕이 대체로 전부 높게 나타나서 학력은 자립의지에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자립의지가 높음을 의미하며, 학력 중심의 사회적 환경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IV-4-2> 학력에 따른 자립의지 및 하위변인

| 구 분 | 자립의지 |       |           | 자립심             |           | 자아통제            |           | 근로의욕          |           |               |
|-----|------|-------|-----------|-----------------|-----------|-----------------|-----------|---------------|-----------|---------------|
|     | N    | M(SD) | F/p       | M(SD)           | F/p       | M(SD)           | F/p       | M(SD)         | F/p       |               |
| 학 력 | 무학   | 1     | 3.07(.)   | 2.173*<br>/.048 | 3.25(.)   | 3.105*<br>/.007 | 3.00(.)   | 1.759/<br>111 | 3.00(.)   | 1.128/<br>357 |
|     | 초졸   | 4     | 3.16(.36) |                 | 3.38(.63) |                 | 3.19(.66) |               | 3.25(.25) |               |
|     | 중졸   | 6     | 3.43(.28) |                 | 3.67(.34) |                 | 3.46(.25) |               | 3.30(.37) |               |
|     | 고졸   | 6     | 3.48(.51) |                 | 3.75(.69) |                 | 3.67(.54) |               | 3.40(.51) |               |
|     | 대졸   | 7     | 3.33(.45) |                 | 3.54(.62) |                 | 3.36(.48) |               | 3.43(.39) |               |
|     | 대졸   | 32    | 3.39(.45) |                 | 3.61(.53) |                 | 3.40(.60) |               | 3.43(.55) |               |
|     | 대졸   | 7     | 3.57(.33) |                 | 3.82(.28) |                 | 3.68(.37) |               | 3.63(.45) |               |
|     | 대학이상 | 10    | 3.94(.63) |                 | 4.40(.53) |                 | 4.00(.74) |               | 3.86(.81) |               |
|     | 계    | 73    | 3.48(.49) |                 | 3.73(.58) |                 | 3.51(.59) |               | 3.48(.55) |               |

\* $p<.05$

자활참여대상자의 결혼형태에 따른 차이는 <표IV-4-3>와 같이 나타났다. 결혼형태는 미혼, 기혼, 이혼, 별거, 사별, 동거, 재혼, 기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자활참여대상자는 이혼가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일반가구 미혼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의지는 오히려 이혼가구나 별거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자립의지 하위변인 자립심, 자아통제, 근로의욕에서도 이혼가구가 다른 가구보다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 자립의지가 어느 가구보다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원변량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IV-4-3> 결혼형태에 따른 자립의지 및 하위변인

| 구 분  | 자립의지 |       |           | 자립심            |           | 자아통제           |           | 근로의욕           |           |               |
|------|------|-------|-----------|----------------|-----------|----------------|-----------|----------------|-----------|---------------|
|      | N    | M(SD) | F/p       | M(SD)          | F/p       | M(SD)          | F/p       | M(SD)          | F/p       |               |
| 결혼형태 | 미혼   | 16    | 3.35(.51) | 1.003/<br>.437 | 3.69(.67) | 1.211/<br>.309 | 3.25(.59) | 1.364/<br>.236 | 3.44(.60) | .825<br>/.571 |
|      | 기혼   | 17    | 3.42(.34) |                | 3.59(.46) |                | 3.59(.53) |                | 3.42(.35) |               |
|      | 이혼   | 25    | 3.56(.59) |                | 3.91(.64) |                | 3.62(.67) |                | 3.52(.69) |               |
|      | 별거   | 2     | 3.64(.30) |                | 4.00(.00) |                | 3.63(.53) |                | 3.60(.28) |               |
|      | 사별   | 7     | 3.35(.36) |                | 3.40(.38) |                | 3.36(.40) |                | 3.46(.50) |               |
|      | 동거   | 2     | 3.64(.30) |                | 3.75(.71) |                | 3.50(.35) |                | 3.60(.00) |               |
|      | 재혼   | 3     | 3.31(.17) |                | 3.58(.29) |                | 3.50(.25) |                | 3.13(.12) |               |
|      | 기타   | 1     | 4.42(.)   |                | 4.50(.)   |                | 4.75(.)   |                | 4.60(.)   |               |
|      | 계    | 73    |           |                | 3.73(.59) |                | 3.51(.59) |                | 3.48(.55) |               |

\* $p < .05$

자활참여대상자의 보장유형에 따라 자립의지 수준은 <표IV-4-4>와 같이 나타났다. 보장유형은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비수급자,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자활참여대상자는 대부분 조건부수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립의지의 수준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분량분석에서는 유의미( $p < .05$ )하게 나타났다.

<표IV-4-4> 보장유형에 따른 자립의지 및 하위변인

| 구 분  | 자립의지   |       |           | 자립심             |           | 자아통제          |           | 근로의욕           |           |                |
|------|--------|-------|-----------|-----------------|-----------|---------------|-----------|----------------|-----------|----------------|
|      | N      | M(SD) | F/p       | M(SD)           | F/p       | M(SD)         | F/p       | M(SD)          | F/p       |                |
| 보장유형 | 일반수급자  | 8     | 3.45(.46) | 3.413*<br>/.022 | 3.88(.67) | .757<br>/.522 | 3.69(.50) | 2.469<br>/.069 | 3.40(.50) | 2.006<br>/.121 |
|      | 조건부수급자 | 52    | 3.40(.46) |                 | 3.68(.55) |               | 3.41(.58) |                | 3.43(.55) |                |
|      | 비수급자   | 4     | 3.45(.33) |                 | 3.63(.32) |               | 3.50(.46) |                | 3.35(.34) |                |
|      | 기타     | 9     | 3.93(.56) |                 | 3.94(.75) |               | 3.94(.65) |                | 3.89(.56) |                |
|      | 계      | 73    | 3.47(.49) |                 | 3.73(.58) |               | 3.51(.59) |                | 3.48(.55) |                |

\* $p < .05$

마지막으로 질병에 따른 자립의지는 <표IV-4-5>와 같이 나타났다. 자활참여 대상자가 비교적 질병이 없고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이 없는 참여자가 자립의지와 자립의지 하위변인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일원변량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4-5> 질병에 따른 자립의지 및 하위변인

| 구 분 |     | 자립의지 |           |                | 자립심       |                | 자아통제      |               | 근로의욕      |               |
|-----|-----|------|-----------|----------------|-----------|----------------|-----------|---------------|-----------|---------------|
|     |     | N    | M(SD)     | F/p            | M(SD)     | F/p            | M(SD)     | F/p           | M(SD)     | F/p           |
| 질병  | 질병유 | 8    | 3.28(.51) | 1.387<br>/.243 | 3.47(.51) | 1.846<br>/.179 | 3.38(.64) | .492<br>/.485 | 3.33(.43) | .672<br>/.415 |
|     | 질병무 | 65   | 3.50(.48) |                | 3.76(.48) |                | 3.53(.59) |               | 3.50(.57) |               |
|     | 계   | 73   | 3.47(.49) |                | 3.73(.49) |                | 3.51(.59) |               | 3.48(.55) |               |

\*p<.05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참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립의지 및 자립의지 하위변수들 간의 수준 차이를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자립의지와 자립의지 하위변인은 연령과 학력이외에서는 일원변량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박영란, 강철희(1999)의 선행연구에서 교육수준이 자립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과 학력 변인에서 부분적으로 가설이 수용되었다.

## 2) 자기효능감과 자립의지 상관관계

### 【 가설2 】 자기효능감과 자립의지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자기효능감과 자립의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IV-5>와 같다. 자립의지와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는 <표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과 자립의지와는  $r=.651$ 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의지와 자기효능감 하위변수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자기조절 효능감 간의 상관관계수  $r=.741$ 의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자립의지와 과제난이도 간의 상관관계수가  $r=.503$ , 자립의지와 자신감간의 상관관계수가  $r=.025$ 순으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립의지가 증가하며, 자기효능감의 유형들도 상호 영향을 주고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강철희(1997), 임은주(2004), 허태현(2005), 김명숙(2008)의 연구와 일치한다.

### 【 가설 3 】 자기효능감 하위변인과 자립의지 하위변인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자기효능감과 자립의지 그리고 하위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IV-5>과 같다. <표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립심과 자기조절 효능감의 상관관계가  $r=.687$ 로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자립심과 과제난이도의 상관관계는  $r=.581$ , 자립심과 자기효능감의 자신감과와의 상관관계는  $r=.147$ 으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통제에서는 자기조절 효능감이  $r=.671$ 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과제난이도가  $r=.501$ 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감은  $r=.084$ 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근로의욕에서는 자기조절 효능감이  $r=.600$ 로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과제난이도가  $r=.312$ 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자신감이  $r=-.131$ 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은 검증되었다.

<표IV-5> 자기효능감과 자립의지 상관관계

|             | 자기<br>효능감 | 자기조절<br>효능감 | 과제<br>난이도 | 자신감   | 자립<br>의지 | 자립심    | 자아<br>통제 | 근로<br>의욕 |
|-------------|-----------|-------------|-----------|-------|----------|--------|----------|----------|
| 자기<br>효능감   | 1         |             |           |       |          |        |          |          |
| 자기조절<br>효능감 | .876**    | 1           |           |       |          |        |          |          |
| 과제<br>난이도   | .871**    | .630**      | 1         |       |          |        |          |          |
| 자신감         | .466**    | .466        | .340**    | 1     |          |        |          |          |
| 자립의지        | .651**    | .741**      | .503**    | .025  | 1        |        |          |          |
| 자립심         | .684**    | .687**      | .581**    | .147  | .875**   | 1      |          |          |
| 자아통제        | .615**    | .671**      | .501**    | .084  | .902**   | .735** | 1        |          |
| 근로의욕        | .443**    | .600**      | .312**    | -.131 | .891**   | .638** | .696**   | 1        |

\*\* p<0.01

### 3) 자기효능감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 가설 4】 자기효능감은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활참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 입력방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IV-6>과 같다.

<표IV-6>자기효능감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 독립변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계수          | t     | P    |
|---|---------|------|----------------|-------|------|
|   | B       | 표준오차 | $\beta$ (Beta) |       |      |
| (Constant)  | .798    | .372 |                | 2.146 | .035 |
| 자기효능감   | .833    | .115 | .651           | 7.232 | .000 |
| R <sup>2</sup> =.424, Adjusted R <sup>2</sup> =.416, F=52.296 |         |      |                |       |      |

<표IV-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독립변인인 자기효능감은 자립의지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결정계수( $R^2$ )값은 .424로 42.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표준화계수( $\beta$ )는 .651로 자립의지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값은 7.232로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에게 있어 동기강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이 자립의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심리적으로 내적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 가능함을 보여준다.

**【 가설 5 】 자기효능감 하위변인은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효능감 하위변인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 입력방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IV-7>와 같다.

**표<IV-7> 자기효능감 하위변인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 독립변인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계수          | t      | P    |
|---|---------|------|----------------|--------|------|
|   | B       | 표준오차 | $\beta$ (Beta) |        |      |
| (Constant)                                    | 1.572   | .404 |                | 3.895  | .000 |
| 자기조절효능감                                       | 1.478   | .224 | 1.155          | 6.584  | .000 |
| 과제난이도   | -.363   | .161 | -.371          | -2.248 | .028 |
| 자신감   | -.560   | .132 | -.388          | -4.231 | .000 |
| $R^2=.556$ , Adjusted $R^2=.537$ , $F=28.828$ |         |      |                |        |      |

표<IV-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을 투입한 결과 결정계수( $R^2$ )값이 .556으로 55.6%로 만큼 설명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효능감 하위변인인 자기조절 효능감은  $t=6.584$ ,  $p < .001$ 에서 28.8%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과제난이도  $t=2.248$ ,  $p < .05$ 에서 자립의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감 또한  $t=4.231$ ,

$p < .001$  에서 자립의지에 유의미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하위변인이 영향력 순서는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자신감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은 검증되었다. 과제난이도와 자신감에 대한 영향력  $\beta$ 값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대상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 과제난이도와 자신감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은선(2005) 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삶의 목적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자활이 높게 나타나며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고, 문제 상황에서 자기조절력이 높을수록 자활의지가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Bandura(1982)의 연구에 의하면 특정 과업이나 행동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인 자기효능감이 강화될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한 결과 또한 본 연구를 지지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기효능감은 자립의지에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자기효능감 하위변인 중 자기조절효능감은 자립의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기 강화 요인으로 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이 강화될 때 자립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 VI. 논의,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자활참여대상자가 자립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동기강화 요인으로 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그에 따른 결론을 제시하고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논의

본 연구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활참여대상자가 자립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심리적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이 자립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았다. 그에 따른 연구문제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립의지의 차이를 살펴보고, 자기효능감과 자립의지의 상관관계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분석은 SPSS Window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치와 일원변량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은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과 단순회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 자립의지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연령과 학력 그리고 결혼 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자립의지의 상관관계는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중 자기조절효능감은 자립의지와 상관관계에서 상관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자기효능감 하위변인은 자립의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자활참여대상자가 자립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동기강화 요인으로 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는 심리상담 자립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교육은 자립의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립의지와 자립의지 하위변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의 연구결과는 자활참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즉 연령과 학력에서 자립의지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즉 연령은 30대에서 학력은 대졸이상에서 수준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자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업유형, 참여기간, 기관유형, 프로그램 만족도는 영향력 있는 변수가 없었으나 사업외적 변수인 학력, 연령, 기술능력, 건강상태, 금전적 보상, 자녀양육, 비공식적 지원망 부족(물질적, 도구적, 정서적 지원)변수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적요소와 가족환경, 후견기관, 프로그램,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지 등이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하였다.

M. Harrington(1971)이 빈곤의 해법을 개인에 대한 교육과 훈련으로 보았듯이 수급자의 탈수급과 고용, 경제적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는 IMF 도입이후 중심주제가 되어 왔는데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인적자본이 변수로 지적되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자활의욕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 대상자는 자기효능감과 자립의지의 수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건강상태도 양호하게 나타났다. 학력도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 자활참여대상자의 자립의지의 성장과 잠재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에 의한 결과는 자립의지가 연령과 학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그 외 일반적인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수준과 취업상태가 자립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선행연구 박영란, 강철희(1999)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교육이 자립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고졸이상 학력이 되어야 취업이나 직업훈련을 통해 기술과 자격증을 취득하는 부분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력이 낮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효능감이나 자립의지가 위축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복지지원의 하나로 학력이 낮거나 중퇴 대상자에겐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학진학에서도 학비 면제가 되는 부분은 적절한 지원정책이라 할 수 있다. 교육지원 정책은 자활참여대상자가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통로이며 진정한 자립기반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보다 더 확대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둘째는 ‘자활참여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자기효능감 하위변인, 자립의지와 자립의지 하위변인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의 연구 결과는 자기효능감과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자립의지와 자립의지의 하위변인과의 상관관계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중에서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다. 과제난이도나 자신감도 유의미한 상관성을 나타냈다. 김은선(2005)은 자아존중감과 효능감이 높을수록, 삶의 목적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자활이 높게 나타나며,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고, 문제 상황에서 자기조절력이 높을수록 자활의지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Kunz&Kalil(1999)는 수급자들의 낮은 자기효능감은 근로시간 규제나 작업규칙 등을 이행하는 부분들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의 연구결과는 복지에서 노동으로의 이행에 있어서 자아존중감과 함께 자기효능감이 취업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 내적통제요인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제시했다(심은희, 2002에서 재인용).

또한 Parker(1994)는 공공부조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종단적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수급자들의 자기효능감을 고양시키는 것이 복지의존정도를 경감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심은희, 2002에서 재인용).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가능성에 대한 신념으로서, 행동의 선택, 수행, 그리고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 자기효능감 기대가 행동이나 행동변화의 중요한 중재자로 작용하게 된다. 즉, 자

기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없을수록 어려운 환경에서 포기를 쉽게 하며, 이와 반대로 특정과제에서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그 과제에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그러한 행동을 지속하는 시간도 길다(Bandura, 1997; 김의철 외1999).

이상 선행 연구를 보면 자기효능감이 자립의지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자활사업 참여경험이 있는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활사업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지 못한 참여자들은 자활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돌파구를 찾거나 뚜렷한 계획 없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강한 자활의지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미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노동시장 또한 진입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에서 본 연구와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자활참여대상자는 충분히 자립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며, 이들은 여건이 마련되면 언제든지 자립할 역량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자립여건은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장애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대상자들에 대한 심리상담과 직업상담 등이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자활참여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자기효능감 하위변인은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의 연구 결과는 자활참여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은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혜영(1995)은 불안이나 공포 등의 정서적 흥분상태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상황에 적절한 수행을 하여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데 흥분되어 있을 때에는 효과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므로 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감, 즉 자기효능감을 약화시킨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정서적 안정 상태에서의 수행은 자기효능감을 높일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박용순(1995)은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있어 심리, 사회적인 문제 상황은 장기적인 빈곤과 실직의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력, 즉 자신감의 상실, 자기관리의 부족, 지속적인 과업 수행 등의 어려움 그리고 자활의지의 부족이라는 심리적인 문제와 불안정한 취업형태, 열악한 주거형태, 다양한 질병문제 가족 교육문제, 가족 구성원 중에 노인과 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점 등의 사회적인 문제로 인한 자립

실패의 요인으로 자립능력의 결여와 대인관계 능력의 결여 등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경제적인 자활사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자활사업을 정서적인 자활지원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김선희(2001)는 쪽방거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의 불안과 우울한 심리적 상태는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심리, 사회적 문제는 신체적 자활처럼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개인의 주관적 복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적극적인 구직행위나 근로의욕을 감소시킴으로써 자활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문진곤(2004)은 자활참여대상자의 자활의욕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한 연구에서 자활의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경제·심리적 지원 중심으로 자활사업의 추진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본 연구와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자활참여대상자는 자기효능감이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자립의지도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상자들은 비교적 높은 자기효능감과 자립의지 수준을 나타내면서도 불구하고 자립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인 자립의 장애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대상자들의 갖고 있는 장애요소들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진단되어 그에 따라 개별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이지 않는 대상자들의 상처받은 심리적 장애요소들을 어루만지고 다독거리 그들의 아픔과 고민을 공감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의지를 북돋아 줄 심리적, 정서적 자립지원 정책이 더욱 중요하고 절실하다.

## 2. 결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립의지와 자립의지 하위변인은 연령과 학력에서

자립의지와 자립의지 하위변인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연령은 30대에서 학력은 대졸이상에서 수준차이가 있었다. 30대에서 자립의지가 높게 나타난 것은 결혼을 통한 가족형성이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20대에서 자립의지가 낮은 것은 자립 동기가 부족한 개인적 장애요인이나 가구여건이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각 연령대별 개별적 자립의지의 장애요인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면서 통합적인 자립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장유형에서는 차상위자활 대상자가 자립의지가 높았다. 실질적인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이 지원이 안되고 있는 차상위자활 대상자가 자립의지가 높게 나왔다는 것은 기존의 조건부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직접적인 지급방식이 자립의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상자의 생계급여 지급방식에 대해서 고려해봐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자기효능감과 자립의지와 자립의지 하위변인 간 상관관계는 상관성이 있었다. 즉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효능감 강화는 자립의지 향상에 도움이 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자기효능감과 자립의지의 관계는 서로 상호작용 하면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을 것임을 보여준다.

셋째, 자기효능감과 자기효능감 하위변인은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립의지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기효능감 하위변인은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자신감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 자기조절효능감은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 강화교육이 자립의지 향상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하고, 동기부여를 촉진할 수 있는 심리적 요인으로 자기효능감 강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는 대상자의 심리적 장애요인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심리상담 자립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기초적인 자료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대상자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장애요인은 자립의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래서 대상자들의 심리적 장애요인이 자립의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대상자가 갖고 있는 심리적 문제를 스스로 해소하고 행동 변화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내적변화가 촉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상자의 잠재된 동기를 끌어내어 동기를 강화시키는 지속적인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지원은 심리적인 내적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는 장애요인을 극복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대상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촉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자립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동기강화를 위한 심리상담 자립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본 연구는 그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 3.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활참여대상자를 제주도 지역자활센터 2개소와 복지기관 시설도우미와 읍·면·동 복지도우미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어 조사대상이 지역적으로 한정되었다. 연구대상을 확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자활센터에서 종사하는 관리자의 태도와 자활센터의 환경여건과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자활참여대상자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상자의 장애요인과 욕구를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다각적으로 심층 분석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자활참여대상자들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 자립을 촉진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자활참여대상자의 심리적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심리상담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이 후속연구로 이루어진다면 대상자의 자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참여 대상자가 직면하고 있는 일반적 특성요인으로 자녀양육이나 경제적 빈곤 문제를 비롯해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단면적,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관련 체계들 간의 복지적 팀웍을 통해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외국의 저소득 자활참여 대상자를 위한 지원정책은 단순한 소득급여가 아닌 노동에의 참여를 통한 궁극적인 자립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과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직업훈련 및 창업상담을 해 주고 있고, 특히 자녀의 양육과 보호에 투자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을 국가에서 해결해 줌으로써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빈곤이 대물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자활참여 대상자의 편모와 편부 가정들에 대하여 고려한 정책적 지원들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서비스의 방향전환은 국가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각자에게도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원이 되고 있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한 대상자의 임금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선진국의 사례발굴을 통해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지원, 학점은행제나 사이버교육지원, 학원지원 등 대상자들의 욕구에 맞는 교육을 통해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지원이 확대 되어야 한다.

둘째, 동기강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립의지 활성화 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자활참여 대상자의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심리, 정서적 자립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정서적 자립은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



해나가려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자신감 있는 자기주도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 정서적 자립을 위해서는 자활참여 대상자가 경험하는 자립의지를 저해하는 정서적인 요소, 즉 자녀 양육 문제나 이혼 및 사별로 인한 심리적 상처, 사람에 대한 절망감, 빈곤의 세습화에 대한 불안감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상담프로그램 제공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저소득 자활참여 대상자의 심리적인 안정과 자립의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즉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속적인 통합사례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자활참여대상자의 자립프로그램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분야별 사회복지의 관련 전문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각 분야의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일시적인 자활이 아닌 전반적인 자립을 위한 개별, 사례별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에 맞춘 교육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자립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상담 프로그램 제공되어 이를 통해 자활참여 대상자의 심리적인 안정과 더불어 자립의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강철희, 김교성 (2003). 취업대상 조건부수급자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52호, 5~32.
- 구인회(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효과 개선방안: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제21권1호, 1~29.
- 김금열(2002). 자활근로대상자를 위한 심리사회적 문제해결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숙(2008). 사회적 지지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원(2005). 자활사업대상자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현(2001). 서울시 저소득 여성가구주를 위한 자활지원방안 :성동구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79-181.
- 김수현, 노대명, 홍경준(2002). 자활지원제도 체계정립 방안.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미간행)**.
- 김승의(2006).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 및 취업·창업관련 활동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창엽(2001). 한국 서민의 건강실태와 의료정책. 도시와빈곤(학술지). 한국사회연구소
- 김영미(2002). 자활지원사업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선(2005). 빈곤여성가구주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자활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의철, 박영신, 양계민(1999). 자기효능감과 인간행동 : 이론적 기초와 발달적 분석/ Albert Bandura. 서울 : 교육과학사.
- 김인숙(1994). 빈곤여성의 사회적 환경요인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서울

-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노대명(2001). 사회적 기업의 기능성과 한계. **서울지역 자활후견기관협회 워크샵 자료집**.
- 노대명(2002). 한국 자활사업의 당면문제와 해결방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 150: 73-84.
- 노대명(2002).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동향과 전망**. 통권 53호.
- 대통령비서실 삶의질 향상 기획단(2000), **공동체와 함께하는 자활지원**. 퇴설당.
- 문진곤(2004). **자활사업참여주민의 자활의욕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숙·박능후(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 실태조사 및 자활프로그램 개발. **경기도 여성정책과. 조사연구보고서**.
- 박능후(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근로연계복지정책**. 보건복지부.
- 박능후(2001). 공공급여구조가 수급자의 근로동기에 미치는 효과. 「**한국사회복지학회**」, 46 : 60-88.
- 박능후(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정과 발전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74: 53-65.
- 박상규(2002). **빈곤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박영란(1998).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박영란·강철희(1999). 저소득 모자가정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한국가족복지학**, 3
- 박용순(2001). **빈곤과 자립**. 서울 : 학지사.
- 배재숙(2002).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학영(2002). **공공부조 수급자의 자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Ⅱ)-자활사업**. 서울 : 보건복지부.
- 송승숙(2010). **근거이론을 통한 빈곤여성가장의 자활의지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동면(2002).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안순자(1997).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중순(2001). 저소득 여성가구의 경제적 자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혜경(1998). 장애인 자립생활 실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리뷰 vol3(1):39-63**
- 유태균·김경희(2003). 자활후견기관 사업참여 가구의 제반특성 및 경제적 어려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19(1): 105-133.**
- 윤명숙(200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정신건강실태와 재활. **2001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동희(2002).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연구-취로형과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자 비교, 경기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경(2004).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아시아태평양 국제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규(2000). 실직자의 정신건강과 강인성 및 사회적지지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vol,19 No,3,2000**
- 이상록(2001). 자활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자활사업의 제도적 특성과 문제점 개선방안의 모색.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동향, 32:12-17.**
- 이상록(2003). 자활사업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식과 태도가 자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21: 105-136.**
- 이상록·진재문(2003). 지역사회 탈빈곤 정책의 효과성 분석 : 경남 전북지역 자활 후견기관 운영의 성과 및 한계분석과 개선 방안의 모색”.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52: 241-271.**
- 이상은(2004). 근로능력 빈곤가구에 대한 빈곤정책의 방향. 「한국사회보장학회」, **통권 제20권 제3호, pp. 27~56.**
- 이승하(2005). 실업여성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문 외(1990). 한 도시지역 저소득층 주민의 정신건강 수준. **신경정신학 제 38권, 제6호.**

- 이은경(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혜(2007). 여성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대인관계기술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인정·최혜경(199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나남출판사
- 이인재(2006). 자활정책론. 나눔의 집
- 이정화(1998). 시범자활지원센터 프로그램의 효과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은(2009). 사회적지지가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구주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호·이자영·박성호(2003). 청소년 수월성 촉진 프로그램 개발연구 : 플로우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현주(2001).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 모형의 모색. 「사회복지연구」, 18.
- 이형하(2004). 자활사업참여 빈곤층의 자활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동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형하·조원탁(2004). 한국자활사업의 자활효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자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20: 217-244.
- 이혜경(2002). 자활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정책포럼, 31: 181-225.
- 이희경(2008). 집단미술치료가 저소득층 아동의 문제행동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혜(2000). 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2001). 시설미혼모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효능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은주(2004). 여성장애인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은희(2001). 빈곤여성이 가지는 심리적 특성이 자활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신재(1997). 저소득층의 주관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정순(2000). 저소득층의 자영창업을 통한 자활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기선(2000). 경제 위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 34집.
- 정진선(2001).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이 진로 의사결정감 및 진로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영순, 이명홍(1998). 도시빈곤가족의 사회심리적인 문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겨울호.
- 정영자(201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자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주(1998). 지체장애인의 자립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호 외(200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 조미현(2004). 중·고등학생의 인생목적, 자기효능감 및 내·외통제성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승호(2002).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의 자활근로 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진(2006). 빈곤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아(2007).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미영(2002). 취업대상 조건부수급자의 경제적 자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응호(2003). 쉼터 노숙인의 심리와 자활의욕에 관한 연구 : 영등포 보현의 집 주거 노숙인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태현(2005).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혜영(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국가족연구회 편(1992). 도시저소득층의 가족문제.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ohw.go.kr>)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kwdi.re.kr>)

Adams, J.S(1965). Inequity in Social Exchange,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2, London :  
Academic Press.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Betz, N. E., Klein, K. L.&Taylor, K. M.(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4, pp. 47-57.

Locke, E.A., Shaw, K.N. Saari, L.M. & Latham, G.P. (1981). Goal setting  
and task performance: 1969-1980. *Psychological Bulletin*, Vol 90,  
125-152.

Hackett, G. & Betz, G(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ur*, 18,  
326-339.

Huseman, R. C, Hatfield, J. D.&Miles, E. W(1987). A New perspective on  
Equity theory : *The Equity Sensitivity Construc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Kunz & Kail(1999). Self esteem, Self efficacy, and Welfare Use. *Social  
Work Research*.

Locke, E. A. & Shaw, Karyl IN., Sarri, Lise M. & Latham, Gary, P.(1981).  
Gol setting and Task Performance : 1969-1980, *Psychological  
Bulletin*.

- Pajares, F. (1996). Self-efficacy beliefs in academic setting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6(4), 543-578.
- Parker, L.(1994). The Role of Workplace Support in Facilitating Self-sufficiency among Single Mothers on Welfare. *Family Relations*.
- Pearce, J. L. (1997).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 of organizational behavior. In S. E. Jackson and C. L. Cooper, (Eds.) *Organizational behavior handbook*. New York: John Wiley, 29-41.
- Pintrich, P.& Schunk, D.(1996). The Role of Expectancy and Self-Efficacy Beliefs Motivation in *Education: Theory, Research & Applications*.
- R.Kanfer(1990). Motivation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Learning :An Intergration of Developmental, Differential and Cognitive Perspective.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221-239.
- Vroom,VictorH.(1964). *Work and motivation*, New York : Wiley.(1995), *Work and Motivation*, San Francisco : Jossey - Bass Publishers.
- Furstenberg, F. F(1997). Applied Research And Public Policy. *Childhood*.



<Abstract>

##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f self-support program participant on self-reliance will

Kim, Geun-sil

Counse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Jung-hwan

This study is aimed at searching for the effect of self-efficacy, as a psychological factor reinforcing motivation for consistently performing a role to a self-support program participant as a member of a society, and providing basic data for developing psychological counseling self-reliance program. I have set study questions below for the purpose.

- Study Question 1. How do self-reliance will and its subvariables change depending on general features?
- Study Question 2. Is there any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self-reliance will?
- Study Question 3. Is there any correlation between subvariables of self-efficacy and self-reliance will?
- Study Question 4. How does self-efficacy affect self-reliance will?
- Study Question 5. How do subvariables of self-efficacy affect self-reliance will?

---

\* This thesis submitted to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1.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purposely sampled 75 people out of 221 who were Jeju-si conditional welfare recipients, with ability to work and were self-reliance program participants at Jeju-si local self-reliance centers, welfare centers, and local town/city halls.

Survey was conducted by manager, who was explained about the survey, handing out survey sheets to participants in local self-reliance center, and by researcher directly explaining about the purpose and contents about the study and handing out the sheets to the participants in local town/city hall. Statistical processing and data analysis were done after the survey.

Measurement of self-efficacy used in this study is derived from 13 questions used by Kim(2006), from handbook of self-reliance program published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2005. Measurement of self-reliance will is from Lim(2004). Survey sheet was composed by Likert 5-point scale, from 'never(1-point)' to 'always(5-point)'.

The data was carried out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one-way ANOVA by SPSS Window 18.0 statistics program for finding differences from general feature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simple/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for verifying effect of independent variable to dependent variable.

The result is shown below.

First, self-reliance will depending on general features showed differences by age, health, and education. That is, participants in their 30s, without diseases, and who have educated more than graduate school level showed highest self-reliance will. On marriage state, separated, divorced, and cohabiting family showed higher self-reliance will than married family. On welfare state, second highest self-support program participants, without living benefits, showed highest self-reliance will, though with little difference. In ANOVA analysis, self-reliance will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age and education, but no differences in other features.

Second,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self-reliance will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positive correlation( $r=.651$ ,  $p<0.01$ ).

Third, subvariables of self-efficacy and self-reliance will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Especially, self-control efficacy, which is a subvariable of self-efficacy, showed high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reliance will.

Fourth, the effect of self-efficacy of participants on self-reliance will showed to have 42.4% of explanation power, with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 .424. Standardized coefficient( $\beta$ ) were .651, showing consistent effect to self-reliance will.

Fifth, the effect of subvariables of self-efficacy on self-reliance will showed explanation power of 55.6%, with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 .556. Among the subvariables, self-control efficacy showed highest effect, with standardized coefficient( $\beta$ ) .741. Difficulty of task and self-confidence also showed significant effect.

The result above presents significant effect of self-efficacy of participants on self-reliance will. Psychological factor of participants, however, is a fatal obstacle to self-reliance will. Therefore, it is a very important issue to figure out how this factor works.

Consequently, it is needed to provoke psychological inner change to solve the one's problem by herself and induce behavior change. To do this, consistent psychological program is required, to elicit substantial motivation and reinforce it. Effective program will provoke psychological inner change as it proceeds, and the change will let one overcome obstacles and promote to change her life.

Therefore it is needed to develop self-support psychological counseling program for consistent reinforcement of motivation to make them self-support and be able to perform the role of members of the society, and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e sense that it provide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 부 록

|                           |    |
|---------------------------|----|
| <부록 1> 자기효능감 척도 질문지 ..... | 63 |
| <부록 2> 자립의지 척도 질문지 .....  | 64 |
| <부록 3> 일반적 특성 질문지 .....   | 65 |

## <부록>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를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에 응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작성해주신 설문지는 숫자 혹은 기호로 표기되어 통계적으로  
분석되므로 개인정보는 절대 노출되지 않으며, 작성하신 모든 내  
용은 연구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연구가 끝나는 즉시 자료는 본 대학교에서 소각하여 폐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설문지 문항은 정답이 없으므로 각 문항을 자세히 읽고 평소 여  
러분의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 중 가장 가깝게 일치되는 문  
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연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12월

제주대학교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연구자 : 김근실

kgs1357@naver.com

지도교수 : 박정환

<부록 1> 자기효능감 척도 질문지

I. 각 문항을 읽으신 후 현재 귀하의 느낌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V'표 해주십시오.

| 문 항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나는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실행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1               | 2         | 3        | 4   | 5         |
| 2. 나는 하기 싫은 일이라도 마칠 때 까지 매달린다.                    | 1               | 2         | 3        | 4   | 5         |
| 3. 나는 실패한 일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히 노력한다.                    | 1               | 2         | 3        | 4   | 5         |
| 4. 나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다.                   | 1               | 2         | 3        | 4   | 5         |
| 5. 나는 일에 자신 있는 사람이다.                              | 1               | 2         | 3        | 4   | 5         |
| 6. 나는 생활에서 당면하는 대부분의 문제를 다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 1               | 2         | 3        | 4   | 5         |
| 7. 나는 작업 목표를 세운 후 실패하면 성공할 때까지 노력한다.              | 1               | 2         | 3        | 4   | 5         |
| 8. 나는 새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다.                             | 1               | 2         | 3        | 4   | 5         |
| 9. 나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면 내가 먼저 접근한다.                     | 1               | 2         | 3        | 4   | 5         |
| 10. 나는 관심을 갖지만 사귀기가 어려우면 그사람과 사귀려는 노력을 쉽게 포기한다.   | 1               | 2         | 3        | 4   | 5         |
| 11. 나는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이라도 내가 사귀고 싶으면 노력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 1               | 2         | 3        | 4   | 5         |
| 12. 나는 친구를 사귀는 능력이 있다.                            | 1               | 2         | 3        | 4   | 5         |
| 13. 나는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

<부록 2> 자립의지 척도 질문지

II. 각 문항을 읽으신 후 현재 귀하의 느낌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V'표 해주십시오.

| 문 항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나는 어떻게든 나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5         |
| 2. 나는 내게 맡겨진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5         |
| 3. 나는 언제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 1               | 2         | 3        | 4   | 5         |
| 4. 나는 나 혼자의 힘으로 어떤 일든 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
| 5. 내게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의지가 있다.                | 1               | 2         | 3        | 4   | 5         |
| 6. 나의 일은 내 의지대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1               | 2         | 3        | 4   | 5         |
| 7. 나는 내가 결정한 사항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진다          | 1               | 2         | 3        | 4   | 5         |
| 8. 나는 남들 앞에서 나의 의견을 분명하게 이야기 한다             | 1               | 2         | 3        | 4   | 5         |
| 9. 나는 나의 장애(취약점)에 대해 다른 사람과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
| 10. 나는 비교적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다                     | 1               | 2         | 3        | 4   | 5         |
| 11. 나는 나의 능력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1               | 2         | 3        | 4   | 5         |
| 12. 나는 장애(취약점)가 있다고 해도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다   | 1               | 2         | 3        | 4   | 5         |
| 13. 나는 필요한 경우 스스로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1               | 2         | 3        | 4   | 5         |

<부록 3> 일반적 특성 질문지

Ⅲ. 다음은 귀하의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일반수급자 ② 조건부수급자 ③ 비수급자 ④ 기타

2. 귀하의 연령은?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무학 또는 한문 수학 ② 초등학교(중퇴포함) ③ 중학교 중퇴  
④ 중학교 졸업 ⑤ 고등학교 중퇴 ⑥ 고등학교 졸업  
⑦ 대학교 중퇴 ⑧ 대학교 졸업 ⑨ 대학원 이상

4. 귀하의 결혼 형태 어떻습니까?

-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별거  
⑤ 사별 ⑥ 동거 ⑦ 재혼 ⑧ 기타  
⑦ 기타

5. 귀하는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힘든 장애나 질환을 가지고 계십니까?

- ① 예(그렇다면 어떤 질환이나 장애입니까? )  
② 아니오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